

-아/어야 하다

~해야 한다 — 문어와 격식체

-아/어야 되다와 같은 의무를 나타내지만, 글이나 안내문, 격식 있는 말에서 주로 쓰이는 형태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마지막 모음 ㅣ 또는 ㅜ	-아야 하다	가다 → 가야 합니다
그 밖의 모음	-어야 하다	읽다 → 읽어야 합니다
하다 동사	해야 하다	제출해야 합니다
구어	-아/어야 되다 사용	가야 돼요
과거	하다에 시제	가야 했습니다
해요체	-아/어야 해요	서둘러야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 규칙을 따르며 일반적인 축약이 일어납니다: 가야 돼요, 먹어야 돼요, 해야 돼요. 형용사에도 씁니다: 건강해야 해요.

한국어의 이 표현은 외부 규칙에 따른 의무와 개인적인 필요를 모두 하나의 형태로 나타냅니다. 과거는 뒤의 동사(되다/하다)에 시제를 붙입니다: 어제 일찍 가야 했어요.

어려운 부분은 부정입니다. 금지와 불필요는 서로 전혀 다른 구문으로 나타냅니다. 금지는 -(으)면 안 되다, 불필요(의무가 없음)는 안 -아/어도 되다로 표현합니다. 이 어미를 그대로 부정한다고 해서 둘 중 어느 의미도 되지 않습니다.

■ 예문

- 1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- 2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.
- 3 다시 확인해야 해요.
- 4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.
- 5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.
- 6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.

■ 비교

-아/어야 되다
의미는 같습니다. 되다는 일상 대화에서 주로 들리고, 하다는 안내문, 설명서, 보고서 등 글에서 주로 씁니다.
가야 돼요. (구어) / 가야 합니다. (문어)

-(으)면 안 되다
반대편: 의무가 아니라 금지를 나타냅니다.
제출해야 합니다. (의무) / 제출하면 안 됩니다. (금지)

-아/어도 되다
허락을 나타내며, 그 부정형은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.
안 가도 됩니다. (가지 않아도 된다)

■ 주의

- ✗ 가야 해요?
- 가야 합니다.
글에서는 합니다체를 유지하세요. 격식 있는 안내문에 해요를 섞으면 문체가 어긋납니다.
- ✗ 가지 않아야 합니다.
- 가면 안 됩니다.
금지는 부정 어간 + 하다가 아니라 -(으)면 안 되다를 씁니다.
- ✗ 해야 하요.
- 해야 해요.
하다는 해요로 활용하며, 하요가 되지 않습니다.